

# 대학 교양 글쓰기에 있어서 탈식민적 글쓰기를 위한 제언

노용무(전북대학교)

## 1. 글을 시작하며<sup>1)</sup>

근래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 교육은 전문화, 파편화되어감으로써 학생들의 학문 능력 저하와 비지성적 혹은 비전문적 전문가를 양산하는 체제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쓰기 및 발표 토론 교육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중심은 교양 교육의 핵심과정으로서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더불어 한층 강화된 교양 교과로서의 위상을 글쓰기 전담기구의 설치 운용 등을 통해 실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명쾌한 답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할 것이다.

대학에서 글을 쓴다는 것 혹은 교양 교육으로서 글쓰기란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는가. 이 명제로부터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은 과연 교양의

---

1) 이 글에 쓰인 모든 비문과 평문투, 논문의 형식에 걸맞지 않는 표현 등은 모두 의식적/무의식적 필자의 책임이며 의도된 글쓰기의 전략임을 밝힌다.

개념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교육은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 그 글쓰기의 형식은 다양한 글쓰기 주체들의 삶과 개성을 만족시켜주고 있는가, 역으로 그 형식이 글쓰기 주체들의 다성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단선화시키며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이다. 얼핏 적어보아도 무수한 의문과 답답함이 떠오르지만 이내 해소되고 만다. 왜냐 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이전의 선학들에 의해서 무수히 제기 되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과 해결점의 끝이 요원하다는 망실감 때문이다.

망실감이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문제제기 자체가 용기와 저항을 필요로 하는 것. 주어진 글쓰기의 형식을 초과하거나 변형하면 함량미달이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글쓰기와 기존 글쓰기의 질서를 변별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탄압과 소외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이 글의 문제 의식은 출발한다. 물론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상이 있다면 그 현상을 가능케 했던 이면과 그 과정이 존재하기에 필자는 그것을 역추적하여 현 상황을 직시하는 균형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대학 교양 글쓰기 과목에 있어서 탈식민적 글쓰기를 위한 시론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학문적 글쓰기로, 학문적 글쓰기 혹은 논증적 글쓰기로 불리는 논문 형식의 고찰과 더불어 그 연원을 추적하고 탈식민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있다.

## 2. 교양 없는 시대, 글쓰기의 계보학

과연 교양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교양’이라 하고 어떤 때 교양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양이란 한 사회나 시대를 통제하는 질서나 윤리의식 혹은 ‘에티켓’ 정도이다. 우리에게 있어 그 교양을 지시하는 수많은 함의는 전통적으로 또는 전근대적인 것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생성되었고 소멸하였다. 소멸하는 것과 생성

하는 것의 기준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란 실용주의적 인식과 ‘없어도 잘 살아 왔다’는 환원주의적 지식이다.

우리의 교양 개념은 우리의 근대가 그렇듯이 일본을 수신자로 하여 전래된 번역어이자 신조어이다. 당시 일본에서 통용된 교양의 개념은 영어(culture)보다는 독일어(bildung) 쪽에 가까운 독일의 18세기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sup>2)</sup> 서구로부터 수입한 일본의 교양 개념은 단순한 지식이나 개인적 자질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격 형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의 습득을 통해 일정한 문화이상을 체득하고, 세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다.<sup>3)</sup> 이러한 맥락은 19세기 영국의 교양 개념과도 연관된다.

“교양이란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든 문제에 있어 세계에서 생각되고 말해진 최상의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전면적인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 지식을 통해 우리의 고정 관념과 습관에 신선하고 자유로운 생각의 물줄기를 갖다 대는 것이다.”<sup>4)</sup>라고 매슈 아놀드가 교양을 정의할 때, 정신과 인간성의 위기라고 진단한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한 것이 바로 ‘교양’이라고 보는 것이다.<sup>5)</sup> 이때 ‘정신과 인간성의 위기’가 당대 유럽 지성계의 교양의 위기를 바라보는 틀이었다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인문학의 위기’와 정확하게 대응된다.

지난 세기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문학의 위기’란 위기설은 21세기형 ‘정신과 인간성의 위기’에 다름 아니다. 교양의 위기가 인문학의 위기로 이어질 때 교양과 인문학은 동궐에 놓인 이음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문”(국어대사전) 혹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인식하기 위한 분석적·비판적 연구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브리태니커)이

2) 신인섭, 「교양 개념의 변용을 통해 본 일본근대문학의 전개양상 연구」, 『일본어문학』, 23집, 2004.

3) 이향철, 「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교양’의 존재형태에 관한 고찰」, 『일본역사연구』, 13집, 2001.

4) 유종호, 「인문주의의 허와 실」, 『유종호 전집 5: 문학의 즐거움』, 민음사, 1995.

5) 위의 책.

란 인문학의 제정의는 모두 교양 개념의 중층화이자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학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원적 의미의 교양에 대한 고찰과 그 적용은 일차적으로 근대의 도구적 이성이 강제하는 파편화된 전문성에 저항하는 것<sup>6)</sup>이자 인문학의 위기를 인문학으로 성찰하는, 전인적 혹은 교양적 전공자를 교육해야 하는 교양교육의 목표와 부합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의 자화상을 볼 수 있다.

IT 강국의 슬로건을 내세우는 첨단과학과 물질만능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인문학의 효용가치를 의문시하는, 각종 직업교육이나 각 학과의 전공전문지식 습득에 걸리는 시간을 더 중요시하거나 인문대학의 학과 명칭과 과목 명칭이 대중의 기호 혹은 취업과 영합해야만 살아남는 풍경. 이러한 그림으로부터 인문학을 지향하는 인문학도 그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이러한 풍경이 만들어졌는가.

우리의 전통적 인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학문적 글쓰기와 창작적 글쓰기는 별개가 아니었다. 즉, 시와 학문을 갈래로 나눌 수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된 연원을 추적하면 우리의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우리의 전통적 글쓰기 양식은 개화기로 접어들어 서구적 보편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자연학문을 받아들이면서 전근대적인 혹은 버려야 할 유산으로 치부되었다.

근대적 글쓰기란 먼저, 자국어의 발견과 더불어 쓰여진 구어체의 창출 그리고 원근법적 시선의 발견과 신문잡지 매체를 통한 시각훈련의 과정, 교통공간의 변화와 여행의 경험<sup>7)</sup> 등이 세계를 근대와 전근대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점. 두 번째로 세계와 자아의 관계에서 고립된 개인이 생성되는 맥락과 근대적 글쓰기의 과정이 연동된다는 점이다. 이 때 두 가지 근대적 글쓰기의 성립 요건은 서구적 글쓰기의 다른 이름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육화되고 체화되는 근간을 이루게 된다.

6) 김주언, 「교양 없는 시대의 교양으로서의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집, 2007.

7) 권용선, 「1910년대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4.

한국전쟁 이후 우리의 학문적 전통은 논리실증주의나 형식주의로 대별되는 서구적 글쓰기였음을 누구나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학문을 한다는 것 혹은 대학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과연 어떤 글쓰기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제 이 글의 도입부에 명시한 질문을 떠 올려 보자. 그러한 의문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니니, 결국 우리 학문적 글쓰기에 축적된 관행이자 제도로써 기능하는 ‘논문중심주의’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혹은 청중에게 진중하게 묻고 싶다. 과연 우리 시대에 학문을 한다는 것 또는 대학에서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서론·본론·결론으로 상징되는 삼단논법의 학술적 글쓰기 외에 더 무엇이 있는가. 달리 말하면, 우리 시대의 글쓰기와 그 형식을 규정하는 정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그 가치는 누구로부터/무엇으로부터 부여받는가.

서론·본론·결론으로 규정된 삼단논법에 각각의 영역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형식화하는 글쓰기. 연구목적·연구사 검토·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등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글쓰기. 금과옥조로 부여된 형식의 통일과 통제에 순응하는 글쓰기. 현학적 아카데미즘의 표상인 각주와 참고문헌이 주어진 틀과 형식에 맞게 달려 있어야 가능한 논문 형식의 글쓰기만이 학술적 가치와 그 의의를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글쓰기. 그것만이 우리 시대에 가능한 학술적 글쓰기일 뿐인가. 관점을 달리하면, 그것은 식민성의 기표이자 탈식민성의 기의이기도 하다.

### 3. 수사학과 탈수사학 그리고 탈식민성

최근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사회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각 대학은 글쓰기 과목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이 과목을 받지 않으면 졸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인문학의 위기를 운운하는 시대에 혹은 교양의 몰락과 소외의 그늘이 그리 멀지 않았던 시대에 글쓰기는 홀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글쓰기에 대한 정당한 흐름과 대접이

고마운 인문학자의 하나인 필자는 그 흐름과 대접이 더욱 더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그러한 소망을 위한 글쓰기가 이 글이고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다. 왜 두려운가. 잠시 감정을 접고 이 글의 논지부터 전개해 보자.

먼저, 대학의 글쓰기 과목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논문작성법이나 학술적 글쓰기로 지칭되는 과정을 교수하는 것을 상상해보자. 이를 기반으로 글쓴이가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적어보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소재와 제재 그리고 주제를 찾아 관찰하거나 사고를 확장해야 한다. 끊임없는 고민의 와중에 선택한 소재거리를 한 편의 글이란 틀거리로 집어넣기 위해 즉 목차를 짜기 위한 개요나 구성의 단계를 거친다. 본격적인 집필의 단계로 들어서지만 글쓴이의 자기검열과 자기 의식이란 피드백을 생략할 수 없다. 따라서 글을 써내려가는 와중에도 글쓴이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정한다.

일단 초고의 형태로 완결된 후에도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되새김질하며 퇴고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학술적 글쓰기의 정전과도 같은 것이다. 그 과정은 글쓴이가 자아와 자신의 글 혹은 타인과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이자 개인적인 사유와 사회적인 사유가 대립/갈등/화해하는 관계의 시간인 것이다. 문제는 글쓴이 개인의 다성적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인 논문이라는 글쓰기의 형식과 그 형식의 수사학이다.

소피스트, 이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퀸틸리아누스, 키케로 등의 유명한 논객으로 대표되는 고전수사학은 소송과 재판에서 개인의 승소를 위한 변론술인 말 잘하는 기술로부터 논증적이고 문학적인 경향과 결부되어 서양의 전통적 학문의 원류로 자리한다. 이와 같은 고전수사학은 작금의 글쓰기 이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논거를 찾아내는 발견, 찾아낸 논거를 정리하는 배열, 배열된 것을 말로 바꾸는 표현, 표현된 것을 갈무리하는 암기, 갈무리된 것을 드러내는 발표로 상징되는 고전수사학의 다섯 가지 분야는 위에 언급한 익명의 글쓴이가 글을 쓰는 과정으로 재생산되어 있다. 즉, 주제설정, 자료수집 및 분류, 개요 짜기, 집필의 단계이다. 이

를 두고 롤랑 바르트는 ‘수사적 기계’라 하지 않았던가.

“그 투입구에 추론의 조야한 자료들, 여러 사실들, 말하고자 하는 주제 등을 넣고 입력하면…(중략)…다섯 부분들을 거치면서 일종의 공정 과정을 거쳐 완전 무장된 완성된 담론이 나온다”<sup>8)</sup>는 바르트의 수사적 기계는 일종의 자판기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커피를 선택한 후 동전을 넣으면 기계 안에서 커피와 프림 그리고 설탕과 물이 주어진 비율에 맞게 혼합되어 일회용 잔에 결과물로 배출된다. 다양한 종류의 음료와 차가 구비되어 있어도 선택은 한 가지일 뿐이다. 따라서 배출구로 나오는 것은 선택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것은 단 하나의 방식만을 허용하는 과정이다.

고전 수사학에 따른 투입구에서 배출구에 이르는 과정은 머리말, 진술부, 맺음말이다. 머리말은 호기심을 일깨우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체계적 주제 분할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고한다. 진술부는 사실이거나 사실을 가정한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으로, 명확하고 사실임직하고 간결해야 한다(비장식성)는 점과 나열된 사실들이 뭔가를 설득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기능성)는 두 가지 필연적인 성격이 필요하다. 맺음말은 사실의 층위로 재론하기와 요약하기라 할 수 있다. 즉, 머리말(서론) - 진술부(본론) - 맺음말(결론)이란 ‘수사적 기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개념들의 갈래화와 유형화를 이룩하여 한 편의 논문이 생산되는 것이다. 물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글쓰기의 외피를 들렀고 그 외피는 후기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연구 논문들에 의해 오늘날 학술 논문의 근간을 완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문제적인 것은 고전 수사학의 ‘수사적 기계’가 현대 작문 교재에서 고스란히 답습되고 있고, 나아가 고대의 논문이란 특정한 글쓰기가 현재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 집단의 중심적인 글쓰기 방식이 되고 있다<sup>9)</sup>는 점과 “논문만이 학술적 업적으로 독점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제도적 관행”<sup>10)</sup>의 연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 제도적 관행인 논문

8) 김현 편,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1985.

9)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1998.

이란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형식을 따르지 않거나 변형한다면 혹은 소위 ‘수사적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탈수사학의 글쓰기를 지향한다면, 그는 그의 학문적 글쓰기에 심각한 ‘함람미달’의 수사를 주홍글씨로 달고 감내해야만 한다.

주홍글씨를 받는 자와 주는 자에 따라, 현실에 대한 지배적 관점을 공고히 하는 학술권력과 그 언저리가 형성된다. 이를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으로 도식화한다면 무리일까. 아니 너무나 명확한 마니교적 이분법 앞에 누구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기 싫은 까닭일 것이다. 누군들 주홍글씨를 받고 싶겠는가. 두렵다. 필자는 그래서 두렵다. ‘수사적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수사적 기계’를 설정해 놓고 획일적인 단어들의 위치 혹은 제한된 학술적 언어만을 허용하는 도식적 글쓰기를 빼꼼하게 비틀어 놓았기 때문이다. 학문적 이론과 글쓰기를 통한 실천적 영역의 이슬한 줄타기는 지금까지 써왔던 ‘수사적 기계’라는 의식적 식민성과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픈 내 안의 무의식적 탈식민성의 지평에 까지 걸쳐 있다.

#### 4. 교양 있는 글쓰기와 탈식민적 글쓰기를 위하여

필자는 앞에서 교양의 개념과 교양 없는 시대를 말했고 그것을 인문학의 위기와 관련시켜 논의를 전개했다. 그 과정에 인문학의 위기와 더불어 교양 있는 시대를 위한 우리사회 인문학자들의 몸부림을 글쓰기 과목과 발표 및 토론 과목의 강화 현상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인문학 고사의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인문교양의 첨병으로 외로이 투쟁한다는 취지의 용원을 글쓰기라는 과목에 전언한 바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학술적 글쓰기는 ‘수사적 기계’와는 다른 새로운 수사학을 창출하려는 혹은 기존 글쓰기 관행을 해체하는 기술적 방법론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치 규정하려는 시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유력한 근대의 도구적 이성으로 가능하

10) 권성우, 『비평의 희망』, 문학동네, 2001.

#### 다. 당혹스럽지만 현실이다.

도서관의 장서는 그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선택, 변환 또는 왜곡되어 왔으며, 한국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강요해 온 방향으로 치우친 채 축적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왜곡과 편향은 교정보다는 조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정사실화의 연속형식’이 이제는 ‘고착된 현실’이 되어 치유의지마저 거의 실종된 상태에 이르렀다.<sup>11)</sup>

인용문은 한 편의 글을 쓸 때 다중다기한 소재거리를 찾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 도서관의 실태를 반영한 글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다른 말을 덧붙이고자하는 의지도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 글의 논지를 매우 적절하게, 똑같이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도서관의 이용자인 우리는 “지배담론에서 규정한 단일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인지하고 그래서 주체성과 능동성을 잃은, 또 다양성이 무시된 존재로 살아오는”<sup>12)</sup> 침묵의 동조자인가. 도서관 장서를 ‘수사적 기계’로 도서관을 한국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모습인 학술권력으로, 이용자를 ‘수사적 기계’를 사용하여 학술적 글쓰기에 매진하는 모든 글쓴이라면 선부른 비약일까. 비약이다. 이 비유가 비약일 수 있는 이유는 치유의지마저 실종되지 않는 않기 때문이다. 이제 치유에의 의지를 조심스레 꺼낼 시간이다.

결국 고전적 수사학에 대한 탈수사학 혹은 ‘수사적 기계’에 저항하는 것은 논자나 논의에 따라 주장하는 방식과 내용은 천차만별이지만 논증 방식을 다양화/다성화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유화의 과정을 인지한다는 점과, 기존의 글쓰기 관행과 차별되는 형식의 글쓰기를 보장해야만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한 인식이 가능할 때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 있어서 학술적 혹은 논증적 글쓰기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향한 기초적인 논의가 비로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 김영기, 「탈식민주의 글쓰기와 장서 연구-도서관 장서의 편향성에 관한 사회사상사적 접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5.

12) 조혜정,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2』, 또 하나의 문화, 1994.

실제로, 학술적 글쓰기를 지향하는 대학의 글쓰기 교육은 대학의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글쓰기 과목 자체가 글쓰기 작업으로부터 글을 쓰는 당사자인 대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억압적/통제적/단선적 작업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 왜냐하면 교수자가 이미 ‘수사적 기계’의 통제에 노출된 당사자일 터이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인내를 잠재적 후속 학문세대인 학습자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물려 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하는 글쓰기 교육과 관련한 접근 방식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공통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글쓰기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은 지적으로 부족한 존재라는 점과 누구에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옳은 글쓰기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전제이다.<sup>13)</sup> 이 두 가지는 모두 잘못되었다. 학생들은 자국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모두 자신의 표현방식을 알고 있는 주체라는 점과, ‘어떠한 상황에서나 반드시 옳은 글쓰기’란 낡은 고대의 수사학을 경전으로 숭배하는 권력의 울타리 내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글쓰기의 초보자인 대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은 한 분야의 전문적 글쓰기에 대한 지식 전수보다는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발견하고 명료화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다. 언어활동을 매개로 학생들이 스스로가 상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강화하는 과정이 있을 후에 자신이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정 분야의 글에 대한 문어적 추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sup>14)</sup>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적 글쓰기가 고등의 정신 작용을 요하는 글쓰기 중에 하나이며 전문적 단계에 이른 몇몇 학술적 전문가에게나 의미를 갖는 좁은 범위의 글쓰기 방식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바로 그 지점이 비지성적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닌 전인적 혹은 ‘정신과 인간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교양적 전문인을 길러내는 교양있는

13) 신선경,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관악어문연구』30집, 2005

14) 위의 글.

교양교육이 가능한 경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글쓰기에 대해 고민했던 선학자는 “사상의 혁신과 표현의 혁신이 이루어지면 논문이 작품이고 작품이 논문이다”<sup>15)</sup>라는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비평기계’라는 수사를 들으며 수많은 저작을 생산했던 비평가이자 문학사가가 자신의 정년퇴임 고별강연에서, 비평조차 온전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자기 표현으로서의 글쓰기를 위해 지금도 고민 중이라는 요지의 표현을 ‘표현인문학’이라는 화두로 말했다는 잡지의 글을 보며 이 역시 만만치 않은 내면의 고투와 자신의 언어와 표현에 대해 고민했던 흔적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제 이 글의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탈식민적 글쓰기에 대한 혹은 탈식민적 글쓰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변죽만 울린 듯 하다. 실제 탈식민적 글쓰기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망을 내 놓아야 할 차례지만 이 글의 목적 밖이자 능력 부족임을 고백한다. 게슴츠레 말하자면 우리 일반의 언어적 감수성에 대한 전복을 수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랑그와 빠롤, 기표와 기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등의 이분법에 대한 저항이다. 그것은 언어의 의미효과를 언어의 배치과정을 통해서 노리는 전략이다. 즉 언어의 구성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의 선조성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배치는 단어와 단어, 문단과 문단의 일반적 구성 비율과 더불어 공백/여백, 결여/잉여, 선별/배제, 침묵/수사, 왜곡/정곡, 치환/평서 등의 개입을 통해 ‘표현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도식화된 글쓰기와 철저하게 객관화된 글쓰기로부터 타자화된, 글쓴이의 개별적/사적 영역을 사면복권시키는 작업이리라.

학술적 글쓰기가 서구의 합리성과 근대의 도구적 이성에 기반한 서양의 역사적·학문적 전통에 그 권위를 인정받을 때 분명 글쓴이 개별 주체의 변별적 글쓰기는 탈식민적 글쓰기의 정체성을 함의한다. 그러한 작업

---

15)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1993.

자체가 철저한 객관성의 세계와 자신만의 관점으로 연구 대상의 가치/의미를 변증적으로 교호하는 과정이자 철두철미한 한국사회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경계적 글쓰기로서의 실천에 해당될 터이다. 필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순 없지만 자전적 글쓰기, 주관적 글쓰기, 되받아 글쓰기, 다성적 글쓰기 등의 다양한 글쓰기 방식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용서가 된다면 편리한 문구를 떠올린다. 이후의 과제로.

## 〈참고문헌〉

- 권성우, 『비평의 희망』, 문학동네, 2001.
- 권용선, 「1910년대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영기, 「탈식민주의 글쓰기와 장서 연구-도서관 장서의 편향성에 관한 사회사상사적 접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5.
-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1998.
- 김주연, 「교양 없는 시대의 교양으로서의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4집, 2007.
- 김현 편,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1985.
- 신선경,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관악어문연구』30집, 2005.
- 신인섭, 「교양 개념의 변용을 통해 본 일본근대문학의 전개양상 연구」, 『일본어문학』, 23집, 2004.
- 유종호, 「인문주의의 허와 실」, 『유종호 전집 5: 문학의 즐거움』, 민음사, 1995.
- 이향철, 「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교양'의 존재형태에 관한 고찰」, 『일본역사연구』13집, 2001.
-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1993.
- 조혜정,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2』, 또 하나의 문화, 1994.

〈Abstract〉

## The proposal for the writing with postcolonial aspect in the cultural writing classes of universities.

Noh, Yong moo

This paper is the essay for the writing with postcolonial aspect in the cultural writing classes of universities. Especially in this paper, writing thesis in university classes and the structural aspects are considered. Thus the aim of this paper is considering the form of thesis, called as an academic or demonstrative writing, and tracing its origin as well. Moreover, the possibility of postcolonial writing will be referred.

In our society, the concept of culture and possession or nonpossession of culture could be referred with relation of the crisis of cultural sciences. Nowadays not our traditional writing styles but unified academic writing ones are remained as a exclusive style of writing. This reason could be explained in the ancient rhetoric, so called 'rhetorical device' for standardized writing.

the premise for writing with culture and postcolonial writing is considering not knowledge about professional writing, but context of communicative access. In addition to those aspects, the open method like autobiographical, subjective and polyphonic writing should be pointed through words placement strategy which could enrich word lines.

key words : postcolonial aspect cultural writing classes of universities demonstrative writing, postcolonial writing 'rhetorical device' for standardized writing

이 논문은 2009년 1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